"아시안컵 결승 패배, 갚아줘야"

韓 여자축구대표팀, 23일
동아시안컵 중국과 대결
첫 경기서 일본에 1-2 석패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장슬기가 21일 일본 이이치현 힐튼나고야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국 여자축구가 일본전 석패의 아쉬움을 씻고,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9일 개최국 일본과 1차전에서 1-2로 석패했던 선수단은 분위기를 다잡는데 집중했다.

장슬기(28·현대제철)는 21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일본전은) 무언가 악순환처럼 계속 돌고 돌았던 패배라서 경기 후, 분위기가 안 좋았다. 감독님께서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나셨지만 지금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고 했다"고 했다.

공격수 최유리(28·현대제철)는 "일본전에서 전방 압박을 많이 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전반에 그러지 못한 것 같다. 후반에 그래도 압박 장면이 나와서 기회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벨호에 이번 대회는 17년만의 정상 탈환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내년 월드컵 본선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전 패배를 딛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며 다음 실전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2차전 상대 중국은 막강한 상대다. 역대 상대전적에서 40전 4승7무29패로 크게 뒤진다.

특히 올해 2월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 먼저 2골을 넣고도 내리 3골을 내주며 2-3으로 역전패했다. 사상 첫 우승을 눈앞에 뒀지만 집중력과 체력 저하를 극복하지 못했다.

장슬기는 "일본과 중국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포메이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을 계속 찾고 있고, 조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월드컵을 위해서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이겼으면 좋겠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진 걸 복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수들 모두 마음가짐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보탰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던 최유리도 "일본전은 아쉬움만 많이 남은 채로 끝났다. 그동안 중국과 경기하면서 일본전만큼 아쉬웠던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득점도 하고, 승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좋은 기억과 경험은 그대로 가져가고, (득점) 경험을 토대로 당연히 내일 모레도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부담감을 깼던 순간이다. 한 계단 올라섰다고 보고,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골문을 두드려 볼 생각이다"고 더했다.

/뉴시스

안세영이 2022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배드민턴 안세영, 종별선수권 2관왕

전국대회 여자단식 · 단체전 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주자인 안세영(삼성생명)이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안세영은 21일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끝난 대회 여자일반부 단식 결승에서 소속팀 동료 김가은(삼성생명)을 세트스코어 2-0(21-6 21-19)으로 눌렀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에서 그동안 7번 싸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천위페이(중국)를 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안세영은 삼성생명 소속으로 출전한 단체전을 포함해 2개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이유림(삼생생명)은 단체전, 여자복식, 혼합복식 우승으로 이번 대회 최다 3관왕에 등극했다.

이유림은 김원호(삼성생명)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 결승에서 고성현-엄혜원(이상 김천시청) 조에 첫 세트를 15-21로 빼앗겼지만 2,3세트를 모두 듀스 접전 끝에 23-21로 잡는 저력을 뽐냈다.

나광민(한국체대), 강형석(밀양시청), 김원호는 안세영과 함께 2관왕을 기록했다. /뉴시스

안산(사진 왼쪽)과 김제덕.

안산 · 김제덕, 양궁 4차 월드컵 예선 1위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 안산(광주여대)과 김제덕(경북일고)이 2022 현대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예선을 1위로 통과,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안산은 21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리커브 예선라운드에서 총 72발 중 33발을 10점에 명중하며 총점 667점으로 1위에 올랐다.

안산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까지 금메달 3개를 휩쓸며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이가현(대전시체육회)과 강채영이 각각 668점으로 2위, 66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최미선(순천시청)은 665점으로 3위인 강채영과 동점을 기록했지만 총 10점 명중 개수에서 강채영에게 뒤져 5위에 자리했다. 강채영이 10점 위치에 31발을 꽂았고, 최미선은 27발을 쐈다.

남자부에선 김제덕과 김우진(청주시청)이 마지막 엔드까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김제덕이 마지막 엔드에서 59점(60점 만점)을 기록하며 최종 687점으로 684점을 기록한 김우진을 3점차로 따돌리며 1위로 통과했다.

맏형 오진혁(현대제철)은 674점으로 9위, 이우석(코오롱)은 672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컴파운드 단체전에 출전한 여자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멕시코를 234-232로 따돌리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미국에 234-236으로 패했다. /뉴시스

평균 관중 1만5749명… 슈퍼레이스, 활기 찾다

2년 간 코로나19 무관중 악재 딛고 흥행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2년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백을 딛고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슈퍼레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개막해 4라운드까지 슈퍼레이스의 평균 관중은 1만5749명(총 6만2998명)으로 나타났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올해 프로야구가 평균 8347명, 프로축구가 4451명인 것에 비춰볼 때 저변이 넓지 않은 모터스포츠에서 적지 않은 이가 슈퍼레이스를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올 시즌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전 예매자 기준 매 라운드 2040세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남성이 70%로 티켓 구매율이 높다.

슈퍼레이스는 레이스를 보는 즐거움에 더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온몸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그 결과 슈퍼레이스는 모터스포츠의 매니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이상 남성들, 이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찾는 아빠들의 티켓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막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서킷 위를 질주하며 레이스를 치열함을 느낄 수 있는 '슈퍼 미니미 레이스'와 실제 택배차량이 선물을 가득싣고 서킷에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2라운드에는 슈퍼레이스 최초로 150km 장거리 레이스가 펼쳐져 빠른 질주와 더불어 미캐닉과의 팀워크가 중요한 '피트스톱'이 화제를 모았다.

나이트레이스가 열린 6월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관중석이 야광봉을 든 팬들로 가득찼다.

지난 17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진 4라운드를 전남와 협업해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로 꾸몄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썸머 페스티벌' 콘셉트를 더해지면서 시원한 물대포가 관중을 흠뻑 적셨다.

슈퍼레이스 김동빈 대표는 "모터스포츠 팬들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4라운드는 전라남도와 협업해 썸머 페스티벌로 마련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 뜨겁게 달아오른 서킷 위에서 물줄기를 맞으며 시원하게 레이스를 관람했고, 트랙 위에서 펼쳐지는 워터쇼와 신나는 축하무대를 함께 즐겼다"고 돌아봤다.

흥행 순항을 거듭 중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강원국제모터페스타)는 다음달 20일과 21일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된다.

/뉴시스